

2023년 9월 24일(주일) 제1649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기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도록

-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 -

추석 명절이 4일 앞으로 다가와 전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랄 것 없는 민족에게 올해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어 추수할 곡식과 과실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를 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온통 추한 것으로 가득차게 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인식하고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회는 이번 추석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본지 2면에 추석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석 가족예배의 모범을 제재하였습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가을학기 모집공고

교육위원회는 문화 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학기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3년도 가을학기 : 10.7일(토)-12.10(주일), 10주
3. 운영비 : 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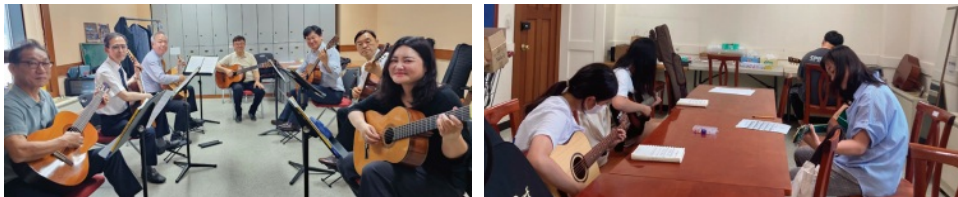
※ 이미 공지드린 대로 23년 가을학기부터 교회지원금은 폐지합니다.

4.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 (010-9189-8019)

5. 구글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한도연 선생
	드럼	토	11:00-	10주	601	정인주 단장
	색소폰	토	14:00-	10회	B101	송재월 권사
연기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박재현 배우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9:00-(120분)	5주	702	유은경 집사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모란 (비단채색화)	주일	14:00-(100분)	5주	704	유은경 집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나눔의 집 폐장

대치동 새예배당으로 옮긴 뒤 교회 구제위원회는 지하 3층 주차장 옆방에 성도들이 입지 않는 헌 옷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물물교환실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의 집'이란 이름이 검토됐다가 후에 '나눔의 집'이란 이름으로 개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사라전도회에서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금을 헌금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었던 '나눔의 집'은 이번 바자를 마지막으로 폐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눔의 집'을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사라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감사가 이어지는 가정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 시 133:1-3	인도자
찬송 559장(통305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다함께
성경봉독 대상 29:11-14	인도자
메시지 “감사가 이어지는 가정”	인도자
찬송 589장(통 308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대상 29:11-14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말씀

추석 명절은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음력 8월 15일에 지켜온 이 명절은 �곡백과를 풍성하게 거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족들의 유대와 한 몸 됨을 강화했던 의미 깊은 명절이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고향을 떠났던 가족들이 고향에 다시 모이는 날이 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신풍경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왔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대상 29:11-14에는 다윗의 신앙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는 먼저 오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과 불과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의 지독한 박해에서도 건지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권과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르러 이런 발전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가정도 우리의 수고가 적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의 역사입니다. 그와 그의 가정은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 앞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라고 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심도 은혜요 드릴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요 실제로 헌신할 수 있음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겨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3.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짐을 감사

19절을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이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도리가 대를 이어 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역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특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이 복음진리를 항상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계속 머무는 비결입니다.

손달익 위임목사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합니다.



2023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



바자 시작 5일 전부터 침구류 신고 트럭 3대 교회로 출발!



깨끗한 바자를 위해 물청소는 기본! 그늘막과 천막을 설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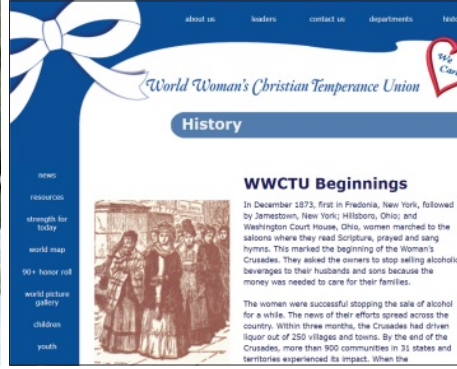
9교구 김치
배추가 금추인 이때 품질 좋은 배
추에 좋은 젓갈과 속재료를 아끼지
않은 고급 김치.
개장하자마자 매진되었습니다.



절제 운동



1923년 5월, 앨리스 아펜젤러(오른쪽 두 번째) 이화학당 교장과 이화학당 학생들과 함께 한 크리스틴 틴링 선교사(왼쪽 세 번째)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와 상징인 화이트 리본 (World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손메례 (연합회 초대 총무)

선교 초기부터 금주와 금연, 축첩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는 개인의 절제와 경건을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왔다. 과거의 폐습과의 단절은 세례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공식화된 강제병합(1910년) 이후 개인적 경건과 절제를 민족적, 경제적 차원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오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운동을 이끌어냈다. 이를 절제운동이라 한다.

금주, 금연, 아편 금지, 공창 폐지, 생활개선 등으로 대표되는 절제운동의 목표는 얼핏 보기에는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경건한 생활 강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절제운동의 배경에는 일제가 조직적으로 한국에 유포한 술과 담배, 국가가 운영하는 공창제도, 아편의 확산 등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육체가 파괴해져가고 향락적 생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암울한 시대상이 있었다.

1910년 감리회와 구세군이 교단 차원에서 금주금연운동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장로회도 1912년부터 평양, 황주 등 각지에 계연회(戒煙會, 담배를 경계하는 회)를 조직하고 전도인을 파견하였다. 미북감리회는 1920년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1922년 미북감리회 '금주위원회'는 미성년자 금주·금연 및 공창 폐지 청원운동을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벌이면서 미국에 금주운동 전담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다. 전담 선교사가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1923년 미국의 절제운동 지도자 틴링(C. I. Tinling, 세계기독교절제회 총무)이 내한하여 전국 교회와 기독교학교에서 순회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교단들의 운동은 1932년 5월 장로회 중심의 '조선기독교절제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절제운동을 주도해 나간 것은 기독교 여성들이었다. 틴링의 순회강연이 좋은 반응을 얻자 1923년 장로회와 감리회의 여

선교사들이 '기독교여자금주회'를 만들었고 이듬해인 1924년 8월에는 한국 여성들이 초교파 여성연합운동기구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절제회가 아닌 절제회연합회가 창설된 것은 여성 선교사들이 1911년에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의 한국 지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의 원칙은 "어떤 종족이나 교파를 관계치 않고 전세계 여자를 단합하여 ... 알콜, 아편 담배, 매음제도를 파괴하여 가정을 잘 보호하고 부인참정권을 얻으며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세계의 절제운동은 가정보호, 여성참정권,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연합회의 창립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절제운동을 중심으로 가정과 나라를 부유하게 하며, 모든 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평화롭고 깨끗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함" 가정과 민족의 부강, 청정사회 건설이 그 목표였던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여성참정권과 전쟁반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한국의 절제운동은 실제로도 여성참정권을 위한 활동이나 반전운동은 전무하였다.

한국 절제운동의 중심축은 금주운동이었다. 연합회는 종로에 금주선전관을 세워 음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질책했다.

“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놀이나지 맙시다.
 조선 안에서 1년간 소비되는 술값이
 8천3백42만9천1백70원이다.
 우리 민족 한 사람의 생활비가
 1년간 2백원이라고 가정하면
 41만7천1백45인의 생활비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생활난으로 인하여
 해마다 고국을 떠나
 외지에 유리방황하는

동포와 주임을 참지 못하여
 자살하는 형제들을 다 합하여도
 전민족의 5분의 1이 못됩니다.
 그러나 1년간 소비되는 술값은
 전민족 5분의 1의 생활비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1년간만 술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생활난에 빠진 형제들
 50년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렵니까?”

절제가 선교 초기 개인적인 경건을 의미하던 것에서 이제는 민족의 활로를 찾는 사회경제적 대안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회의 초대 총무 손메례는 '금주운동은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연합회의 절제운동은 "절제회를 조직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예 교회 축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널리 확산되었다. 연합회는 창립 당시 규모는 지회 16개소, 회원 1,508명이었다. 4년 뒤인 1928년에는 지회 53개소에 회원 3,217명으로 지회 기준 3배 이상, 회원 기준 2배 가량 성장하였다. 1934년에는 지회가 다시 2배 이상 성장해 116개소에 이르렀고 회원은 3,530명이 되었다. 이후 북간도와 남만주 일대에도 지회가 창립되어 절제회 회원은 최대 6만 명을 헤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던 절제운동은 1938년 이후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1938년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 교회가 일제의 압력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면서 한국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조선분회"로 명칭을 바꾸고 일본에 종속되었고 지도자들은 친일의 길을 걸었다. 진짜 겨울의 시작이었다.

특녀



- 1교구 허재우 성도·이지예 성도 특녀 허유나 아기 9월 12일(화)
(이우태 성도·박정희 권사 외손녀)

특남



- 3교구 한세희 성도·김가현 성도 특남 한재혁 아기 9월 21일(목)
(김지수 안수집사·김순진 권사 외손자)

식사 제공

- 8교구 손태현 은퇴 안수집사·박혜옥 권사 손형호 집사 손형린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1시-2시)	수요일	전도회 (1시-2시)	토요일	선교회 (1시-2시)
				9/2	빌립 안드레 베드로
9/3	자원자	9/6	도르가 루디아 뵤뵤	9/9	바울 엘리야
9/10	자원자 마리아	9/13	한나	9/16	모세
9/17	자원자	9/20	에스터	9/23	바자
9/24	자원자	9/27	리브가		추석 연휴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9월25일	월	속 10-14		9월25일	월	시 69-77	
9월26일	화	말 1-4, 마 1-3		9월26일	화	시 78-85	
9월27일	수	마 4-5		9월27일	수	시 86-98	
9월28일	목	마 6-8		9월28일	목	시 99-105	
9월29일	금	마 9-11		9월29일	금	시 106-115	
9월30일	토	마 12-13		9월30일	토	시 116-119	
10월1일	주일	마 14-15		10월1일	주일	시 120-136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족과 친지와 의 만남의 장이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만사를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행하게 하소서.
2. 사랑의 바자로 모인 헌신과 정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선한 손길 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전세계 곳곳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재난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향한 전진이 있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의 위임목사

- | | |
|--------------------------|---------------------------|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명열 |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차도훈 이강인 차명도 유충기 |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